

혁명의 해불봉이여,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전위대오의 앞길에 영원히 라오르라

뜨겁게 뿜어나온 광복거리의 대오로 밀려 지리잡고있는 청년운동사적관은 조선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사적도 전하고있다.

참관자들은 아버지수령님의 독창적인 청년중시 사상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위대한 청년사상의 정수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마련하신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참관을 이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어오신 장군님께서 혁명의 불꽃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빛나게 하여주시였으며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참관자들과 함께 여러 전시실들에 전시된 혁명사적자료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걸여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런 영웅들 되게 되어 우리는 10호선로 경로를 옮기었다.

이 호선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료정(당시) 제8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신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당애 풀없이 옹기종기 주체혁명위업 계승자들의 입심단전의 대회, 총정의 대회로, 그 어떤 광복투쟁에서도 인민 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서 더욱 빛나어나가는 승리자의 대회, 영웅의 대회로 조국정상을 기구한 사료정 제8차대회를, 강사는 대회장에서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당을 댈 일장에서 경사유휘하는 근위대, 결사대가 되며 사회주의를 지키는 500만의 총공탄이 될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장사의 피혈은 우리를 1990년 대대로 이끌어갔다.

당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적책동과 사회주의운동에 나타난 혁명의 배신사범들에 의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당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위중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종말을 미루면서 반사회주의책동의 예봉을 우리 공화국에 집중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를 지키는 선봉대, 돌격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료정 제8차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였고 우리 청년들은 총정의 뒤에서 굳게 굳은 우리 청년들의 입심단전의 위업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도록 하여주시었다.

몸소 대외담당자와 장교, 그 성격과 사명도 밝혀주시고 대회를 앞둔 주제 8(21993)년 1월 5일에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를 발표하시어 청년운동에 나서는 정치적문제들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신 위대한 장군님.

사적자료들과 사적품들을 돌아보느라니 사료정 제8차대회장에 같이 있던 수령님사유품의 격동적인 화폭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안고 전시실에 서 전국, 전민, 전군에 전신상대부를 선보함에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을 높이 받들고 500만의 리수복, 500만의 총공탄이 될

굳은 결의에 150여만명의 청년들이 조선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탄원한 자료들 돌아본 후 참관을 이어가던 우리는 다음호선에 모셔진 한상익 사적분원앞에서 감동을 멈추었다.

우리 청년전위대에 혁명의 해불봉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동지!

자애로운 그 영상을 우리를수록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솟구쳐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세 세대 청년들이 썩질 줄 모르는 혁명의 불길이 되어 불타는 열정과 리없이 땀과 깨끗한 총정심으로 당을 댈 일장에서 용호보위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당의 참된 청년전위대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장군님 넘겨주시신 혁명의 해불봉, 뜻깊은 사적분원은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혁명의 불꽃을 영원히 안고 조선의 생명이시며 혁명의 심장으로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경사유휘하는 제일결사대, 제일총공탄이 되어 장군님의 선군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우리 청년들의 역사의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던 혁사의 순간을 전하고있다.

사적분원앞에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창건 50주년을 계기로 혁명시대의 길잡이로 훌륭히 전행하셨다고 높이 평가하신데 대해서와 청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과 안겨주시신데 대한 해설을 읽은 감동속에 있었다.

참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넘겨주시신 혁명의 해불봉을 역세게 돌아잡고 영원히 당을 따라 버림없이 총정의 한길로 가고 갈 불타는 맹세가 비껴있었다.

《청년들을 사랑하라!》 이것은 일찍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유명한 구호이다.

우리 장군님의 필생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던 이 구호에 어떤 실연한 뜻이 담겨있는가는 이 땅 그 어디에나 력력의 세겨져있는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말해주고있었다.

우리는 자강명에서 있었던 하나의 장군님을 사신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의 정물이 얼마나 비범한것인가를 전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창당 첫 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시고 청년층을 전략적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습니다.》

주제 8(1999)년 6월 15일, 자강명의 밤은 막없이 깊어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정이 가까와오도록 도당책임일군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는.

이후간간 절쳐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혁명사적지와 발전소들, 공장과 농장들을 찾으신 후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잊으시고 잠이 든다고 보고를 바치기시는데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동행한 책임일군은 그의 마음속에 강겨진 선군정치사상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확고한 믿음이 간직되어있고 자강명에 모두로 하여 부강조국건설의 전향적구실을 얻어나갈 신의가 굳게 자리잡고있을 줄 더 잘 알게 되었다.

한초한초,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고있었다.

그때 가벼운 손가락소리가 났다. 달려드는 서해상의 정황에 대하여

경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가 있었기에 배후에서 개척된 주체적조선청년운동은 명실공히 아버지수령님의 청년중심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를 절세위인의 절정이 모셔진 곳으로 안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제후가 어려오는 절정을 느끼는 격정속에 우리르는데는 그날의 목소리가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료정창립 50주년을 맞아 청년동맹의 명칭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도록 크나큰 존경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나라말에 그려진 바르진 가운데서도 청년동맹에서 보고올린 명칭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문건의 색깔마다에 사회주의라는 문구도 새겨주시고 활판의 판공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이라고 합니다.》 라는 친필을 새겨 주시었습니다.》

제실은 김지 않았지만 참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앞에서 오로도 목 발달음을 배시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0년대 초에 벌써 우리 청년조직의 명칭에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실것을 밝히 하시었다.

하지만 한없이 걸리 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아직까지 사료정 명칭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꼭 그렇기요가 있다면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보라고 하시면서 굳이 만류 하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을 뜻하며 잃고 온 내마가 비면에 무뎠던 혁명의 역사를 그 나라 청년동맹의 명칭에 태양의 존함을 모시는 사업

을 주체혁명의 세시대에 더는 미룰수 없는 중대사로 보시였었던것이다.

천황을 우리를수록 청년동맹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청년동맹조직건설과 활동절세위원의 절정이 모셔진 곳으로 안내하였다.

이러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료정창립 50주년을 맞아 청년동맹의 명칭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도록 크나큰 존경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나라말에 그려진 바르진 가운데서도 청년동맹에서 보고올린 명칭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문건의 색깔마다에 사회주의라는 문구도 새겨주시고 활판의 판공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이라고 합니다.》 라는 친필을 새겨 주시었습니다.》

제실은 김지 않았지만 참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앞에서 오로도 목 발달음을 배시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0년대 초에 벌써 우리 청년조직의 명칭에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실것을 밝히 하시었다.

하지만 한없이 걸리 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아직까지 사료정 명칭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꼭 그렇기요가 있다면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보라고 하시면서 굳이 만류 하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을 뜻하며 잃고 온 내마가 비면에 무뎠던 혁명의 역사를 그 나라 청년동맹의 명칭에 태양의 존함을 모시는 사업

을 주체혁명의 세시대에 더는 미룰수 없는 중대사로 보시였었던것이다.

천황을 우리를수록 청년동맹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청년동맹조직건설과 활동절세위원의 절정이 모셔진 곳으로 안내하였다.

이러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료정창립 50주년을 맞아 청년동맹의 명칭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도록 크나큰 존경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나라말에 그려진 바르진 가운데서도 청년동맹에서 보고올린 명칭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문건의 색깔마다에 사회주의라는 문구도 새겨주시고 활판의 판공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이라고 합니다.》 라는 친필을 새겨 주시었습니다.》

제실은 김지 않았지만 참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앞에서 오로도 목 발달음을 배시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0년대 초에 벌써 우리 청년조직의 명칭에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실것을 밝히 하시었다.

하지만 한없이 걸리 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아직까지 사료정 명칭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꼭 그렇기요가 있다면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보라고 하시면서 굳이 만류 하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을 뜻하며 잃고 온 내마가 비면에 무뎠던 혁명의 역사를 그 나라 청년동맹의 명칭에 태양의 존함을 모시는 사업

2호선기초에 닿을 줄리고 력사의 초평기를 헤쳐오신 사회주의라는 함선이 암초에 부딪혔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종말을 떠벌려 패배를 불렀다. 또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괴뢰군부 내기 위한 책동을 떨쳐부렸다.

세계의 이목은 우리 나라로 쏠리고있었다.

조선은 이제 격변하는 사태발전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들은 우리 당과 사상도 뜻도 절도 같이하는 새 세대 선군혁명동지가 되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영도를 충실하게 받들고 우리로써 총지휘관이 되며 당과 운명을 같이해 나가야 합니다.》

주제 8(1992)년 9월 9일 일이었다. 온 나라가 떨릴분위기에 휩싸여 줄겨온 휴식의 하루를 보내고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고사령부 작전실에서 미제와의 대결전을 지휘하고계셨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나가는 데서 청년요양문제에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민속적인 계승자이다. ...

그러시면서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더 잘 준비시키고 당의 두리에 입심단전된 우리 청년들의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기 위하여 다음해 2월에 사료정(당시)대회를 하려고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청년들을 사랑하라!》 이것은 일찍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유명한 구호이다.

우리 장군님의 필생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던 이 구호에 어떤 실연한 뜻이 담겨있는가는 이 땅 그 어디에나 력력의 세겨져있는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말해주고있었다.

우리는 자강명에서 있었던 하나의 장군님을 사신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의 정물이 얼마나 비범한것인가를 전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창당 첫 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시고 청년층을 전략적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습니다.》

주제 8(1999)년 6월 15일, 자강명의 밤은 막없이 깊어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정이 가까와오도록 도당책임일군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는.

이후간간 절쳐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혁명사적지와 발전소들, 공장과 농장들을 찾으신 후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잊으시고 잠이 든다고 보고를 바치기시는데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동행한 책임일군은 그의 마음속에 강겨진 선군정치사상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확고한 믿음이 간직되어있고 자강명에 모두로 하여 부강조국건설의 전향적구실을 얻어나갈 신의가 굳게 자리잡고있을 줄 더 잘 알게 되었다.

한초한초,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고있었다.

그때 가벼운 손가락소리가 났다. 달려드는 서해상의 정황에 대하여

《청년들을 사랑하라!》 이것은 일찍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유명한 구호이다.

우리 장군님의 필생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던 이 구호에 어떤 실연한 뜻이 담겨있는가는 이 땅 그 어디에나 력력의 세겨져있는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말해주고있었다.

우리는 자강명에서 있었던 하나의 장군님을 사신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의 정물이 얼마나 비범한것인가를 전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창당 첫 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시고 청년층을 전략적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습니다.》

주제 8(1999)년 6월 15일, 자강명의 밤은 막없이 깊어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정이 가까와오도록 도당책임일군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는.

이후간간 절쳐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혁명사적지와 발전소들, 공장과 농장들을 찾으신 후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잊으시고 잠이 든다고 보고를 바치기시는데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동행한 책임일군은 그의 마음속에 강겨진 선군정치사상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확고한 믿음이 간직되어있고 자강명에 모두로 하여 부강조국건설의 전향적구실을 얻어나갈 신의가 굳게 자리잡고있을 줄 더 잘 알게 되었다.

한초한초,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고있었다.

그때 가벼운 손가락소리가 났다. 달려드는 서해상의 정황에 대하여

《청년들을 사랑하라!》 이것은 일찍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유명한 구호이다.

우리 장군님의 필생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던 이 구호에 어떤 실연한 뜻이 담겨있는가는 이 땅 그 어디에나 력력의 세겨져있는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말해주고있었다.

우리는 자강명에서 있었던 하나의 장군님을 사신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의 정물이 얼마나 비범한것인가를 전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창당 첫 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시고 청년층을 전략적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습니다.》

주제 8(1999)년 6월 15일, 자강명의 밤은 막없이 깊어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정이 가까와오도록 도당책임일군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는.

이후간간 절쳐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혁명사적지와 발전소들, 공장과 농장들을 찾으신 후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잊으시고 잠이 든다고 보고를 바치기시는데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동행한 책임일군은 그의 마음속에 강겨진 선군정치사상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확고한 믿음이 간직되어있고 자강명에 모두로 하여 부강조국건설의 전향적구실을 얻어나갈 신의가 굳게 자리잡고있을 줄 더 잘 알게 되었다.

한초한초,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고있었다.

그때 가벼운 손가락소리가 났다. 달려드는 서해상의 정황에 대하여

《청년들을 사랑하라!》 이것은 일찍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유명한 구호이다.

우리 장군님의 필생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던 이 구호에 어떤 실연한 뜻이 담겨있는가는 이 땅 그 어디에나 력력의 세겨져있는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말해주고있었다.

우리는 자강명에서 있었던 하나의 장군님을 사신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의 정물이 얼마나 비범한것인가를 전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창당 첫 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시고 청년층을 전략적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습니다.》

주제 8(1999)년 6월 15일, 자강명의 밤은 막없이 깊어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정이 가까와오도록 도당책임일군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는.

이후간간 절쳐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혁명사적지와 발전소들, 공장과 농장들을 찾으신 후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잊으시고 잠이 든다고 보고를 바치기시는데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동행한 책임일군은 그의 마음속에 강겨진 선군정치사상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확고한 믿음이 간직되어있고 자강명에 모두로 하여 부강조국건설의 전향적구실을 얻어나갈 신의가 굳게 자리잡고있을 줄 더 잘 알게 되었다.

한초한초,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고있었다.

그때 가벼운 손가락소리가 났다. 달려드는 서해상의 정황에 대하여

《청년들을 사랑하라!》 이것은 일찍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유명한 구호이다.

우리 장군님의 필생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던 이 구호에 어떤 실연한 뜻이 담겨있는가는 이 땅 그 어디에나 력력의 세겨져있는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말해주고있었다.

우리는 자강명에서 있었던 하나의 장군님을 사신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의 정물이 얼마나 비범한것인가를 전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창당 첫 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시고 청년층을 전략적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습니다.》

주제 8(1999)년 6월 15일, 자강명의 밤은 막없이 깊어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정이 가까와오도록 도당책임일군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는.

이후간간 절쳐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혁명사적지와 발전소들, 공장과 농장들을 찾으신 후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잊으시고 잠이 든다고 보고를 바치기시는데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동행한 책임일군은 그의 마음속에 강겨진 선군정치사상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확고한 믿음이 간직되어있고 자강명에 모두로 하여 부강조국건설의 전향적구실을 얻어나갈 신의가 굳게 자리잡고있을 줄 더 잘 알게 되었다.

한초한초,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고있었다.

그때 가벼운 손가락소리가 났다. 달려드는 서해상의 정황에 대하여

《청년들을 사랑하라!》 이것은 일찍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유명한 구호이다.

우리 장군님의 필생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던 이 구호에 어떤 실연한 뜻이 담겨있는가는 이 땅 그 어디에나 력력의 세겨져있는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말해주고있었다.

우리는 자강명에서 있었던 하나의 장군님을 사신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의 정물이 얼마나 비범한것인가를 전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창당 첫 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시고 청년층을 전략적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습니다.》

주제 8(1999)년 6월 15일, 자강명의 밤은 막없이 깊어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정이 가까와오도록 도당책임일군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는.

이후간간 절쳐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혁명사적지와 발전소들, 공장과 농장들을 찾으신 후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잊으시고 잠이 든다고 보고를 바치기시는데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동행한 책임일군은 그의 마음속에 강겨진 선군정치사상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확고한 믿음이 간직되어있고 자강명에 모두로 하여 부강조국건설의 전향적구실을 얻어나갈 신의가 굳게 자리잡고있을 줄 더 잘 알게 되었다.

한초한초,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고있었다.

그때 가벼운 손가락소리가 났다. 달려드는 서해상의 정황에 대하여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가슴깊이 새기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할 결의를 다지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향일의 경위대원들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속에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더욱 깊이 새겨주시었다.

어느 3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전위의 정호에 담긴 숭고한 의미를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일일 일군들과 자라를 같이하고 청년요양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께서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당시)에 청년전위라는 칭호를 주셨는데 아마 우리 청년들이 그 의미보다는 모를것이라고 교시하시

한 청년일군이 받아안은 아버이사랑

우리 청년들이 풀었다면 흥주발전소(당시)건설에서 청년중심의 위업을 펼쳐가고있는 사실, 그 모든 투쟁의 앞장에서 페기하고 다그친 일군들을 모르고는 청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도당책임일군의 이야기로 돌아와보고있다.

그때 서해상에서는 재년의 도화선이 타들어가고있었다.

머뭇머뭇 피뢰군에 《비상장제》를 선포한 절들은 전쟁의 불길을 일으키는 목적에 서해해협지역에서 군사적도발을 계단식으로 확대해가고 있었다.

15일, 열정적지역에서는 적어간에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전쟁! 정세는 바로 그것을 예고하고있었다.

전세제가 숨을 죽이고 조선에 초침을 모았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집적거리고있는 추레같은 적들을 받아안고 끌어보신 사대의 발전과 절과까지 내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당책임일군에게 그날의 행동을 이겨낸 자강도인민들의 투쟁이야기를 들려보라고 하시는데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최고사령부 작전대에 가서야 할 그 시각조차도 너무도 태연자학하신 그이를 부르며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신중에는 벌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의 피성이 울리고있음을 확신하시었다.

책임일군은 우리는 벌써 이겼구나 하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에 대담을 올렸다.

풀어쓰며지면서도 풍광과 일몰을 지닌 자강명인민들, 위대한 장군님의 거슬러오는 현지지도를 받으며 치열한

한 생도록 빛내이신 애국의 뜻

오늘은 열렬한 애국자인 김보현선생님의 탄생 145돌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은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시고 생을 빛내이신 김보현선생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경건히 추추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생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촌놈들이었지만 진정을 팔아먹어 내는 그분들의 결결한 혁명정신에 탄복하였고 거기서 커다란 교수를 받았다.》

김보현선생님은 한평생을 조국과 겨레를 위해 바치시어 거기에 생의 보람과 막을 맞은 열렬한 애국자시었다.

말이 쉽지 자식들을 키워 고스란히 혁명의 길에 내세우고 그대 위퍼드는 것은 고초와 시련을 묵묵히 견디면서 자손들의 뒤를 주운다 반석은다라는 것이 한부인의 전후나 몇년간의 감옥살이에 비할 일이 아니라 그 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글말에는 김보현선생님의 업적에 대한 혁사의 평가가 절대성되어있다.

김보현선생님의 애국심은 자손분들을 나라를 찾기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맺어내내우로 표현성을 다하여 반겨주시는 데서 뚜렷이 표현되어있다.

김보현선생님께서는 늘 자손분들에게 남자는 전쟁에서 싸우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시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야 한다는 애국의 뜻을 깊이 새겨주시고 혁명투쟁에 적극 내세우시었다.

김보현선생님께서는 산골과 풀밭은 삼천리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리고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용우선생님을 선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귀순공작》을 벌이며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는 것은 주

김보현선생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자주 들려주시며 자손분들에게 나라를 열릴 시말하는 정신을 깊이 심어주시었다.

주제 7(1918)년 가을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제 교활리들의 모진 악행속에서도 굴함없이 썩의 타침내 감옥에서 나오시었다.

남인의 후손 소나무와도 같이 위엄이런 엄지 않는 혁명정기를 뜻하여 지켜내신 김형직선생님께 김보현선생님께서는 한편 적은 마음을 잘도 굴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 소원을 성취하려고 고구려려하시었다.

우리 민족을 지리멸렬시키려고 우리의 말과 글 지어는 이놈까지도 일본식 오도 부를것을 강요한 잔악한 일제의 장서계명책동에 김보현선생님과 만경대혁명가분들은 절대로 용하지 아니하시었다.

일제가 저들의 강요에 조급이라도 불순하면 가차없이 탄압하던 그대 조선사범의 생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지시 않았고 끝까지 지켜내신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김보현선생님과 만경대혁명가분들의 열렬한 애국심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게 된다.

일제가 어떻게 거세하게 다닌지는 항일전의 불길, 조국해방전의 불길을 감히 막아보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용우선생님을 선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귀순공작》을 벌이며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는 것은 주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분출시켜 200일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새 기록창조의 불길높이 계속혁신 앞으로

금 옥 청년 철 도 세 멘 트 공 장 에서

당 제 7차대회 취입편입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안주뿔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200일전투의 불길높이 일파마다에서 자못한 승전보성을 다발적으로, 탄발적으로 울려가고있다.

7월 31일까지 놀이 세은 년간 뿔프생산계획 및나개 원수!

200일전투 일별목표 180%이상으로 넘쳐 수행, 최고생산기록 편이 넘쳐, 최고생산기록 편이 넘쳐!

결승선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삼고 새 기록, 새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일군들이 날마다 이룩한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비약의 화룡이 날아갈수록 더욱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정을 안고 총력기어이 새기를 주름잡으며 총력수호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을 본떠를 힘있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200일전투목표를 서달이

년간계획을 완수한 안주뿔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상 일당제 집행하고 려명기미진 설에 필요한 각종 뿔프들을 생산보장하며 생산전투들에 대한 개전투사를 그리고서 공장들의 번모를 완전히 일신시키는것, 바로 이것이 당이 번개를 치던 우뢰가 화답하며 울려서 더 큰 울림으로 울리게 하여야 하는것이다.

이와같이, 신라총동무들이 책임직접지시상행사를 전폭적으로 지원 200일전투투쟁선진자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 새로운 결발들과 힘차게 나서는 불은기다, 자랑찬 위훈과 혁신의 새 소식을 전하는 다양한 직관들, 생산지대중의 심장마다에 격동의 불을 다는 힘있는 정제선동무들이 하여 말고 대로 모든 전투상황이 불도거나 마냥 무릅쓰고 넘어간다.

200일전투목표를 완수한 각종 뿔프들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며 원수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압박해오는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수습사과기를 새로 도입하고 알기까지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종전보다 2배이상 생산량을 늘려주고 있다.

김기철, 박영철, 김집현, 정봉춘동무들 비롯하여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주물직장의 초급일

군들과 로동자들이 자제의 힘으로 총동무와 기동기를 수리정비하고 하루 9차지 이상의 뿔프를 부어냄으로써 뿔프중심의 물과 구를 앞장에서 힘있게 열어나가 있다.

청년기공직장의 혁신, 김복남, 김희희동무들과 부수직장의 총동무가 자기 기대외에 두 기대, 세 기대까지 맡아 매일 과제를 2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공구직장의 안상규동무와 공장 직원의 최영환동무들이 증산뿔프를 벌려 매일 전투과제를 두둑, 세뿔로 해체한 채 청년조립직장의 리영수, 고영철동무들이 동무들 비롯한 로동자들이 기수가 되어 위험한 작업들을 도맡아 하고 다음과제를 위해 깨끗한 정신을 바쳐가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공장의 기술자들도 새 기술의 창조자답게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뿔프의 설계업을 위한 사업에 앞장서서 공구들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이들은 수습사과기를 새로 도입하고 알기까지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종전보다 2배이상 생산량을 늘려주고 있다.

김기철, 박영철, 김집현, 정봉춘동무들 비롯하여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주물직장의 초급일

군들과 로동자들이 자제의 힘으로 총동무와 기동기를 수리정비하고 하루 9차지 이상의 뿔프를 부어냄으로써 뿔프중심의 물과 구를 앞장에서 힘있게 열어나가 있다.

수은에서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매일 계획을 18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면서도 긴급히 제기되는 설비수리과제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 리정철동무, 주변에 호한 모태원동무를 적극 탐구지원하여 100% 합격률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주물직장의 보배인 김복남동무, 고영철동무에서 지대한 경사찬을 받으며 로보수시간을 절반이상이나 앞장서 단조직업반원들, 무다치는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자기 초소를 굳건히 지켜 200일전투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는 표상동, 허동, 박시봉, 한정남, 오석호, 정현준동무들...

정영 이철모동무의 가슴마다에는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기어이 강행돌파하고 200일전투의 결승선에 남기지 못한다는 자제심으로 우리 당의 사회주의적 건설위업을 지향한 실천과 신념으로 여객을 달항하여가는 강렬한 열망이 용양마당 뜨겁게 끓어오르고있다.

단리마수도로 정철같이 내달려 나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하는 안주뿔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오늘도 새 기록, 새 기준창조의 불길높이 200일전투목표를 향하여 뿔프공적, 계속혁신해나가고있다.

현시기도반

과학기술을 모범이로 삼아

200일전투의 불길높이 다발적으로, 탄발적으로 승전보성이 울려가고 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취제들을 이 어가면 우리는 얼마간 세멘트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는 금옥 청년철도세멘트공장을 찾았다.

단리마수도창조의 불길에 새차제 타고있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제의 힘과 지혜로 끊임없이 새것을 탐구하고 창조해나가는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성과의 요인이 있다는것을 잘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지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양상을 일으켜야 합니다.》

최근에 공장에서는 예견치 않았던 정황으로 세멘트 생산과 강도보양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오래된 설비의 고

장기 많은데다가 또 그것을 수리하자면 핵심소자가 흔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종종 수리시간이 길어지곤 하였던것이다.

공장의 200일전투 세멘트생산목표수행의 불과구의 하나를 설비개조에서 찾은 공장일군들은 자제의 힘과 기술로 빠른 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으로 기술자, 기능공들을 불러일으켰다.

최신과학기술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어느 한 수일설비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과정에 기술자들은 핵심소자를 어디서나 흔한 소자로 대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공정리실 실험 리혁일동무와 공장의 기술자진이 프로그램과 심과 부분개조를 위한 지침을 모르는 장조의 낮과 밤을 출기차게 이어갔다.

공정리실 실험 리혁일동무와 공장의 기술자진이 프로그램과 심과 부분개조를 위한 지침을 모르는 장조의 낮과 밤을 출기차게 이어갔다.

공정리실 실험 리혁일동무와 공장의 기술자진이 프로그램과 심과 부분개조를 위한 지침을 모르는 장조의 낮과 밤을 출기차게 이어갔다.

공정리실 실험 리혁일동무와 공장의 기술자진이 프로그램과 심과 부분개조를 위한 지침을 모르는 장조의 낮과 밤을 출기차게 이어갔다.

우리의 벨트콘베아줄개생산공정 확립

은 산 탄 광 설 비 부 속 품 공 장 에서

순천지구청년단평판합기업소는 산탄광설비부속품공장에서 우리 식 벨트콘베아줄개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공정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은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벨트콘베아줄개를 자체로 생산보장할 결의를 안고 달려나오던 날부터는 이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생산공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벨트콘베아줄개는 탄광들의 구제적조정에 맞게 새롭게 설계되고으로서 다른 나라의것에 비해 견고하고 성능이 좋다. 현재 공장에서는 순천지구청년단평판합기업소 남양탄광 벨트콘베아줄개공사를 위한 설계와 제작을 맡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지도 인민에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은 자강적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간데 대한 당의 전투적소호를 피없는 심장마다에 새겨주고 벨트콘베아줄개생산공정용 자체로 일떠세우도록 노력해나가고 있다.

200일전투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도록 탄부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의 기술로 벨트콘베아줄개를 일 마다의 더 경제 생산할수 있다는 믿음만 배심을 안고 분발해 나갔다.

지배인 주체혁명투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이 대중의 심장속에 지역사회의 정신력을 깊이 심어 주면서 줄개생산공정확립을 위한 투쟁의 일장에 섰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창조적 지혜를 합치는 과정에 줄개의 수명을 높이고 성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관건적문제들을 우리 식으로 풀어나갔으며 때때로 원리공정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도져하여 공장

의 종업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 나 짧은 기간에 줄개의 각종 부분품제작공정을 다 갖춘 생산공정을 일떠세웠다.

지금 공장에서는 보기에도 좋고 견고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우리의 벨트콘베아줄개들이 줄지어 생산되어나오고있다.

자강적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성능이 좋은 벨트콘베아줄개생산공정을 확립한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은 남양탄광 뿐 아니라 우리 나라 탄광들에 요구되는 벨트콘베아줄개를 원단의 보장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까지 생산공정 확립하고 있다.

본사기자 강명현



200일전투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도록 탄부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 순천지구청년단평판합기업소 본부 탄광에서 - 본사기자 신종혁 찍음

탄전에 내려지는 결사관철의 정신

공심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

그때부터 글썽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수 없는 주력적투쟁으로 전개되게 되었고 탄광에서는 전담원들의 줄기과를 열기 위한 줄기과가 조직되었다.

이 성과를 기본골격은 3년 분이상, 준비골격은 6개월분이상 앞세워 대거 투입한 수형님들의 유공을 감사관철하기 위해 노력한 이 때로 없는 것 두를 버려온 이 곳 탄광도동계급의 투쟁정신과 일본새가 날

새운 이들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치열한 전투였다. 리영식, 세만분, 리현봉동무들 비롯한 일군들이 수행의 유공관철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었다. 이들은 전투원장에게 수시로 줄기과를 보고하고 함께 오가드린도 잡고 때로는 거정에서 준비태는 후방물지도 안겨 주며 전투원들의 사기를 부추

고려면 어느날 못하지 않은 정황이 조성되었다. 마지막 300m 구간을 앞두고 갑자기 탄광에서 물이 터졌다. 순간 일군들과 일군공들은 억이 막혔다. 30m를 남겨두고...

물이 점점 차오르는 속에서 누구나 외우는 말이였다. 어찌 그걸지 않겠는가. 위대한 수형님들의 유공을 관철할 용의 하의 생각으로 가슴을 붙여주어 힘든 고비를 뚫고 넘어온 이들이였다.

그러하여 생산의 전망을 열기

막장에 치로되는 물은 순식간에 정을 총포로 집어삼켰다. 어떻게 하든 막장을 살리려고 뿔프를 들이던탄광 물방은 좁처럼 울지 않았다.

다른 빛으로 글썽이소를 옮기는가 아니면 막장을 살려야 하는가 하는 갈림길에 이물앞에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 기

술자들은 막장을 살리기로 결심하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어 탄광에서는 경안

에 차오른 물은 자던태수의 방

으로 빼돌리기 위한 물길공사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들은 설계도면을 놓고 경

의 오상관계를 정확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가장 치러가 뚫으면서

도 시일을 단축할수 있는 합리

적인 위치를 확정하였다. 불길같다다 공기까지 뿔자

면 2대이상의 투쟁정황을 수형

아였다. 이들은 지형관정, 정지표수준

과 물길공수준과의 차이를 분석

한데 기초하여 공심계획을 치밀

하게 세웠다. 일군들이 받아

도록 뛰고 또 뛰며 물사에 필요

한 배우와 재물을 해체해놓고

탄광의 탄부들, 로동자들 누구

나 돌격대원들과 함께 오랜 정

위한 전투는 끊임없이 이어지

게 되었다. 하지만 전투는 처음부터 힘들

게 진행되었다. 앞길은 곧지 못하고 바닥

은 진흙이어서 통발을 세우면

다시 갠정에서 꺼내들었다. 다

시 작업이후에 하여 전투를 하

다 하니 하루에 한톤을 전진하

고 하니 하루에 한톤을 전진하

고 하니 하루에 한톤을 전진하

고 하니 하루에 한톤을 전진하

고 하니 하루에 한톤을 전진하

고 하니 하루에 한톤을 전진하

고 하니 하루에 한톤을 전진하

고 하니 하루에 한톤을 전진하

고 하니 하루에 한톤을 전진하

고 하니 하루에 한톤을 전진하

고 하니 하루에 한톤을 전진하

고 하니 하루에 한톤을 전진하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창립 40돐 기념보고회가 18일에 진행되었다.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무사업부 소장, 지도국과 산하단위 일군들,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건설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은 우리 당의 혁명전열을 당에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단

계단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조직되고 강화발전된 혁명사적

부들의 위대한 건설부대이며 온 나라에 혁명전열표양을 거머쥔

공로로써 우리 당의 혁명정신과 속도감의 기상으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도록 결을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축하

문에는 우리 당의 혁명사적지건설부창립과 주체적전진사상을 충실하게 받들어 혁명전열표양 거점들을 훌륭히 꾸리고 건설의 대면업기를 펼치는데 적극 이바지해온 자랑스러운 연혁이 새겨져있다고 강조하였다.

지도국의 건설자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수형님들에 대한 절절한 고백과 열화같은 충성을 지니고 금수신대양관을 영현한 태양의 정기로 꾸리며 만수무단의 덕을 베풀어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친데 대하여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지도국의 건설자들이 당에서 맡겨준 조국해방전쟁전열사료와 과학기술전열을 비롯한 중요대사건들을 계기일대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한 열렬한 열을 떨쳐냈으며 당 제7차대회기 열린 뜻깊은 올해에 김일성경쟁과 조선헌법바름관을 개건하고 자연바름관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데 공헌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일련년전 당과 수형에 대한 열렬한 충성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전열을 충실한 김일성경쟁의 만년세대로 빛내이며 로동당 시대의 대기비미적정도를 높여

일떠세우기 위한 보편한 투쟁에서 커다란 위훈을 세운 혁명사적지건설자들과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혁명사적지

건설지도국 당위원장 손무현의 기념보고에 이어 전기사업부 총장, 평안북도당위원장 박영우이

보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에 대한 김일성경쟁의 열렬한 충성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전열을 충실한 김일성경쟁의 만년세대로 빛내이며 로동당 시대의 대기비미적정도를 높여 일떠세우기 위한 보편한 투쟁에서 커다란 위훈을 세운 혁명사적지건설자들과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강제복제가공공장이 최근 당의 경제정책방향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전기사업부 총장, 평안북도당위원장 박영우이 보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에 대한 김일성경쟁의 열렬한 충성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전열을 충실한 김일성경쟁의 만년세대로 빛내이며 로동당 시대의 대기비미적정도를 높여 일떠세우기 위한 보편한 투쟁에서 커다란 위훈을 세운 혁명사적지건설자들과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혁명사적지

건설지도국 당위원장 손무현의 기념보고에 이어 전기사업부 총장, 평안북도당위원장 박영우이 보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에 대한 김일성경쟁의 열렬한 충성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전열을 충실한 김일성경쟁의 만년세대로 빛내이며 로동당 시대의 대기비미적정도를 높여 일떠세우기 위한 보편한 투쟁에서 커다란 위훈을 세운 혁명사적지건설자들과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혁명사적지

건설지도국 당위원장 손무현의 기념보고에 이어 전기사업부 총장, 평안북도당위원장 박영우이 보고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혁명사적지

비약적 발전을 추동하는 공장 애

강제복제가공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그를 만난 초급당일군은 해 연마치려라 잔치에 뿔은가고

였다. 그러나 그는 전기사업부 총장, 평안북도당위원장 박영우이 보고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혁명사적지

건설지도국 당위원장 손무현의 기념보고에 이어 전기사업부 총장, 평안북도당위원장 박영우이 보고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혁명사적지

건설지도국 당위원장 손무현의 기념보고에 이어 전기사업부 총장, 평안북도당위원장 박영우이 보고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혁명사적지

건설지도국 당위원장 손무현의 기념보고에 이어 전기사업부 총장, 평안북도당위원장 박영우이 보고하였다.

하여 하루작업일정에 포함시켰다.

이런 공정한 총화평가사업은 종업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생산계획을 놓고 자기의 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총화평가

기회를 시켜 주었다. 공장용

을 위한 한가지라도 좋은 일을

찾아내려는 마음들이 울려나

고 하였다. 이처럼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총화평가들이 과학적

공정성의 원칙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책임성과 열의를 고조시켰다.

다. 이처럼 초급당일군은 자

를 위해 오만가지의 공을 들

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종업

한사람한사람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고있다.

종업원들에게 바친 일군들의 뜨거운 사랑의 아기가 맺혔다.

지나날의 과오를 맺고있고 불현한 마음으로 전장에서

다만 믿고 있어 전투를 벌리는

기능공을 잘 도와주어 그가 중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를 필사적으로 가로막아 나선 역적도배들에게 차례질것은 민족의 존엄한 징벌뿐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성명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중국 심양에서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를 위한 북, 남, 해외의 실무자들이 상호적으로 진행되고 련석회의성사에 대한 온 겨레의 헌정같은 의지와 소망을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되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우리의 련석회의 제안을 《위장평화공세》라느니, 《북핵 포기 최우선》이라느니 하고 악랄하게 접근하는 한편 실무회의에 참가하였던 남북성원들을 《연중회 처벌》하겠다고 때들면서 살벌한 공안탄압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는 이번 《8.15경축사》에서도 저술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진시도》를 그만두라느니 뭐니 하고 또다시 도발적방법을 써먹었듯이 꿰차대어 세인을 경악케 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어떻게 하나 우리의 련석회의제안을 호응해나서서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여 우리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는 련석회의개최를 끝판대 가로막아보려는 것으로써 출발한 용남 못할 반공일척의악이 아닐수 없다.

내외가 공인하는것처럼 우리의 련석회의제안은 조선반도정세가 날로 평해지는 엄중한 국면에서 우리 민족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자주적으로 열어가려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담고있는 내용의 공명정대성으로 보나 련석회의의 위협이 커지고있는 오늘날의 정세로 보나 매우 시기적절하며 현실적인 합리성이 담겨 있어 련석회의제안은 온 민족의 전폭적인 지지반응을 받고있다.

해외의 각 지역에서는 우리의 제언이 발표된 즉시 열렬한 찬동의 뜻을 표시하면서 지역별준비위원회들과 통일적인 해외준비위원회들을 내외국 회의의 성과적개최를 위해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도 련석회의제안이 온 민족의 뜻과 힘을 모아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황로를 열어 나갈수 있는 촉망있는 정치형상제안으로 된다고 지지해나서면서 남북추진기회단을 구성하고 회의성사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있다.

그러나 유독 박근혜정권정당만은 한쪽으로 지향되는 대외와 인심을 독살스럽게 기억하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끝까지 좌지우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니 이야말로 자기 민족, 자기 겨레와 한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반역의 길로 끝까지 가겠다는 로골적인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박근혜정부가 통일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민족의 제안을 한사코 회한하고 오히려 굴욕적인 《한미통명강화》에 더욱 파는이 되어 날뛰고있는 현실은 그들이 북남관계개선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

일도 안중에 없고 바라지도 않은 추악한 민족반역의 무리들이라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줄뿐이다.

피해당방의 이러한 행동을 해방후 일제를 대신하여 기여한 민족에 밀려서 민족의 전폭적으로 나라의 공헌을 고작, 장기화시킨 리승만연도를 불가하는 데국배적당풍이다.

다치면 비질듯 최대로 알아오른것이 오늘날의 조선반도정세이며 련석회의의 성과를 당하거나 마느냐 하는 중대기표에서 있는것이 우리 민족, 우리 겨레이다.

지금 피폐당은 굴욕적인 《씨드》배치결정으로 온 남북평화 열강들의 힘의 대결장, 핵전쟁으로 만들고 겨레의 운명을 달도마에 올려놓는 전진공세로 할당을 시습없이 저지르고있다.

뿐만아니라 내외의 헌정같은 반대파에게도 불구하고 미국의 침략전쟁장비들을 현수 끌어들이는가 하면 하늘과 땅, 바다에서 동쪽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의 평을을 출려내고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민족의 선의와 아량은 한사코 뿌리박고서 외세와 아합하여 군사적 도발과 전쟁, 대결에만 미쳐달리는 박근혜정부는 그 무엇으로써도 민족반역의 만고악법을 정당화할수 없다.

조국통일은 우리자신의 손으로, 하나로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민족자주이고 민족적

단결이라고 하는 리승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를 지키고 자주통일의 황로를 열어가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남편을 짓밟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자들은 그 누구이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중국적과열을 앞당기게 될것이라는것이 이 시각 겨레가 보내는 연속한 경고이다.

내외만용일척의 그 어떤 책동도 과감히 짓부시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기여이 성사시킴으로써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며 시종일관하다.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는 온 겨레와 국제 손잡고 반대하면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위해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며 남과 해외의 정당, 단체, 광범한 각계인사들과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출로를 힘차게 개척해나갈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은 민족이 단합하면 극복 못할 난관이 없다는 신념과 자주통일의 최우선성에 대한 확고한 믿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련쳐나시야 할것이다.

주제105(2016)년 8월 18일
 평 양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통일자주독립 이룩하자

재유럽 동포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조국해방 71돐에 즈음하여 제이원한동포협의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유럽지역본부가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40여년의 일제식민지 지배로부터 조국이 해방된지 71년이 되었다고 밝혔다.

통한의 분열력을 끝장내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민족자주성명이라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그러나 리명박근혜의 식민지 《정권》은 친일, 친미행위를 반성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반민족적, 반공적인 악행만을 일삼고있으며 민족의 운명과 생존사제를 위협하는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민족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친미공물 《정권》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해 북이 내놓은 북남군사당국회담제안, 련석회의제안에 대해서도 《남남갈등조정》이나, 《전쟁정없는 위장 평화공세》니 하며 거부하였다고 성명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지금》은 대외보다 제제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하며 《씨드》배치에 대항하고있는데 대해 격렬을 표시하였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가세될세 없다고 하면서 성명은 미국이 북을 목표로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등을 남조선과 주변지역에 배치하고 우리 겨레의 머리에 핵화살을 들이우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성명은 전쟁을 막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구제추방할 필요가 있다. 15.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통일자주독립을 이룩하자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남북평화 어느곳에도 《씨드》가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재미 동포 단체가 론평 발표

재미동포진권연합회가 14일 미국의 《씨드》배치행위를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미국의 상원에서 통과된 2017년도 군사예산에 《씨드》생산, 배치와 관련한 비유항목이 없음을 두고 불구하고 배치정황을 했다는것은 그 모든 비용을 전액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는것을 단죄한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남조선의 국방부장관은 사기들이 배치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남짓짓말을 하고있다고 론평은 비난하였다.

론평은 군사전문도 없이 명색만 군수전문지인 박근혜가 《씨드》배치를 결정했것은 철저이 미국의 뜻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씨드》배치에 대해 남측과 미국측이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하지만 실적이 있어 대조선입상정적으로 일관해온 미국이 입상정적으로 결정한다며 잘못이라고 론평은 규탄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민족의 통일대회합에 대한 로골적인 방해라고 하면서 론평은 이로써 미국이 조선반도를 남북관계와 자주통일을 견사한다는 전쟁방오로서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보였다고 단죄하였다.

《씨드》의 남조선배치가 전쟁을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남북평화 어느곳에도 전쟁을 부르는 《씨드》가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씨드》반대투쟁은 곧 전쟁 반대투쟁이며 전쟁을 끌고다니는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씨드》도 철수한다.

평화형성제정하여 미군을 조국땅에서 철수시키자.

【조선중앙통신】

민족의 특등재양거리, 국제사회의 화근

지금 남조선은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남조선사회의 파국적현실은 《남조선》으로서의 초보적인 능력도 갖추지 못한 무지무능한 박근혜에게 원보승수국 련력의 자리를 가로챘고 패수들이 권좌에 있었다. 박근혜역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부정협상으로 당선된 《불법대통령》이라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의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역도는 겨우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피폐정 보원뿐아니라 피폐공직이사명부, 안전행정부, 통일부까지 총공무원들이 벌인 여론조작능력의 결과였다.

그에 대해 미국신문들은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프랑스신문》 《공동》과 AFP통신, 도이칠란트신문 《차이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언론들은 일제히 남조선의 《정보원과 사이버사명부들이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2400만건이상의 트위터글을 배포시켰다.》고 대대적으로 폭로하였다.

박근혜당은 저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사건의 내막이 드러나게 되자 여론의 이복을 받게 되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박근혜당도 이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당도 이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당도 이복을 받게 될 것이다.

로 돌리기 위해 비열하게도 북남수교상봉대화를 공개하는 망명을 부렸다. 하지만 그 추악한 망명을 비전 중심은 감출수 없었다.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와 영국의 로이 터닝, 일본의 《아시아시봉》 등은 일제히 《박근혜 《정부》가 특급기밀 문서인 남북수교상봉대화를 공개했다는 불명실거에 출판 여론의 이복을 불러놓으려는 정략적시도이다.》, 《대화공개는 불법이며 정치개입이다.》라고 까맣다. 《프랑스신문 《공동》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 정보원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새누리당》 지지층을 동원하여 이를 덮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야유조소하였다.

미리측에 본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애비로부러 때문이라는 특대행치말이 없는 저능아, 정치협조론 박근혜가 남조선을 어떤 꼴로 만들어놓았는가 하는것은 명백하다.

청와대에 이런 압축사가 퍼뜨려 불고있는 바람에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불평과 재난이 그칠새 없었다. 《프랑스신문》과 《공동》은 《박근혜 《정부》가 특급기밀 문서인 남북수교상봉대화를 공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새누리당》 지지층을 동원하여 이를 덮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야유조소하였다.

미리측에 본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애비로부러 때문이라는 특대행치말이 없는 저능아, 정치협조론 박근혜가 남조선을 어떤 꼴로 만들어놓았는가 하는것은 명백하다.

청와대에 이런 압축사가 퍼뜨려 불고있는 바람에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불평과 재난이 그칠새 없었다. 《프랑스신문》과 《공동》은 《박근혜 《정부》가 특급기밀 문서인 남북수교상봉대화를 공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새누리당》 지지층을 동원하여 이를 덮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야유조소하였다.

세우지 않고 제물장만 보다 300여명의 어린 생명들을 그대로 바다에 수장시켰으며 그 책임을 뱌스럼에도 공개 불거져 넘겨주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수교자들을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물론 프랑스 《신문》, 도이칠란트잡지 《슈피겔》을 비롯한 외국의 주요언론들은 《《세월》 호상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원만한 인제이며 최악의 참사이다.》, 《박근혜가 《세월》호 선상에서 책임을 넘겨버리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는 시도이다.》라고 폭로하였다.

베르스사태발생시기에도 마찬가지로, 박근혜역도 베르스사태가 발생한 초기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수많은 인명피해와 사회적 재앙을 초래했다. 이와 판연하여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와 도이칠란트의 도이체 웰레방송, 일본의 요도통신 등은 《남조선의 베르스침발발생사태는 세계적인 문제거리》, 《《정부》의 미숙하고 때로는 대응태부에 초래된 인제》 등으로 피비탄국을 조소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많은 정치분석가들이 박근혜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박근혜역도 베르스사태가 발생한 초기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수많은 인명피해와 사회적 재앙을 초래했다. 이와 판연하여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와 도이칠란트의 도이체 웰레방송, 일본의 요도통신 등은 《남조선의 베르스침발발생사태는 세계적인 문제거리》, 《《정부》의 미숙하고 때로는 대응태부에 초래된 인제》 등으로 피비탄국을 조소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많은 정치분석가들이 박근혜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라고 무지무능한 박근혜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박근혜역도는 집권기간 온갖 못된짓을 다 저지르며 최악의 피착을 덧칠함으로써 하여 남조선 각계층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외국인들은 올해 4월 에 있는 피폐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회사의 독재정이며 역겨운 반역이인 박근혜를 집중적으로 비난하였다.

세계의 주요언론들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항해 당내에 대해 《박근혜의 강권정치에 대한 선거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했다.》, 《이런 선거결과를 박근혜에 대한 인종의 심판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박근혜역도 베르스사태가 발생한 초기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수많은 인명피해와 사회적 재앙을 초래했다. 이와 판연하여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와 도이칠란트의 도이체 웰레방송, 일본의 요도통신 등은 《남조선의 베르스침발발생사태는 세계적인 문제거리》, 《《정부》의 미숙하고 때로는 대응태부에 초래된 인제》 등으로 피비탄국을 조소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많은 정치분석가들이 박근혜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박근혜역도 베르스사태가 발생한 초기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수많은 인명피해와 사회적 재앙을 초래했다. 이와 판연하여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와 도이칠란트의 도이체 웰레방송, 일본의 요도통신 등은 《남조선의 베르스침발발생사태는 세계적인 문제거리》, 《《정부》의 미숙하고 때로는 대응태부에 초래된 인제》 등으로 피비탄국을 조소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많은 정치분석가들이 박근혜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권력형부정부패범죄는 왜 근절되지 못하는가

박근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우병우는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범죄는 왜 근절되지 못하는가

박근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우병우는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범죄는 왜 근절되지 못하는가

박근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우병우는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범죄는 왜 근절되지 못하는가

박근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우병우는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범죄는 왜 근절되지 못하는가

《남북 대화 재개하라》, 《씨드》배치 철회하라》

6.15 남북위원회 투쟁 전개

남조선인민대회본부는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6.15남측위원회)가 15일 서울의 대학로에서 조국해방 71돐을 맞아 조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6.15남측위원회의 상임대표의 장 광복은 대외사를 통해 최근 단결 민족공동행사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민간교류활화조치로 인해 서울에서의 8.15민족공동행사와 남북노동자통일촉진기회가 좌절되었다고 규탄하였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명백히 실패하였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예타와 신도예타 《합의》, 《씨드》배치 등 모든것이 《북 압박》을 위한것이라고 운운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동족을 갈라섰다고 외세를 끌어들이고 추진과 평화를 내팽개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단죄하였다.

6.15남측위원회는 앞으로 남과 북, 해외의 각계층의 접촉과 대화, 대화와 통일회합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는 《정부》가 《씨드》배치

를 위한것이라고 운운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동족을 갈라섰다고 외세를 끌어들이고 추진과 평화를 내팽개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단죄하였다.

6.15남측위원회는 앞으로 남과 북, 해외의 각계층의 접촉과 대화, 대화와 통일회합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는 《정부》가 《씨드》배치

를 위한것이라고 운운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동족을 갈라섰다고 외세를 끌어들이고 추진과 평화를 내팽개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단죄하였다.

6.15남측위원회는 앞으로 남과 북, 해외의 각계층의 접촉과 대화, 대화와 통일회합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는 《정부》가 《씨드》배치

를 위한것이라고 운운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동족을 갈라섰다고 외세를 끌어들이고 추진과 평화를 내팽개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단죄하였다.

6.15남측위원회는 앞으로 남과 북, 해외의 각계층의 접촉과 대화, 대화와 통일회합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는 《정부》가 《씨드》배치

《씨드》사태가 고발하는 친미역적들의 추악한 정체(1)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은 더러운 매국노들

박근혜당이 강행하고있는 《씨드》배치행위는 남조선과 해외에서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씨드》배치가 미국의 제국주의의를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본말없는 처사이기때문이다.

《씨드》라는 제양거리를 한사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피폐당국은 온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피폐당국은 온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박근혜당이 강행하고있는 《씨드》배치행위는 남조선과 해외에서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씨드》배치가 미국의 제국주의의를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본말없는 처사이기때문이다.

《씨드》라는 제양거리를 한사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피폐당국은 온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박근혜당이 강행하고있는 《씨드》배치행위는 남조선과 해외에서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씨드》배치가 미국의 제국주의의를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본말없는 처사이기때문이다.

《씨드》라는 제양거리를 한사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피폐당국은 온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박근혜당이 강행하고있는 《씨드》배치행위는 남조선과 해외에서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씨드》배치가 미국의 제국주의의를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본말없는 처사이기때문이다.

《씨드》라는 제양거리를 한사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피폐당국은 온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박근혜당이 강행하고있는 《씨드》배치행위는 남조선과 해외에서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씨드》배치가 미국의 제국주의의를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본말없는 처사이기때문이다.

《씨드》라는 제양거리를 한사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피폐당국은 온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박근혜당이 강행하고있는 《씨드》배치행위는 남조선과 해외에서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씨드》배치가 미국의 제국주의의를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본말없는 처사이기때문이다.

《씨드》라는 제양거리를 한사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피폐당국은 온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박근혜당이 강행하고있는 《씨드》배치행위는 남조선과 해외에서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씨드》배치가 미국의 제국주의의를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본말없는 처사이기때문이다.

《씨드》라는 제양거리를 한사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피폐당국은 온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박근혜당이 강행하고있는 《씨드》배치행위는 남조선과 해외에서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씨드》배치가 미국의 제국주의의를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본말없는 처사이기때문이다.

《씨드》라는 제양거리를 한사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피폐당국은 온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박근혜당이 강행하고있는 《씨드》배치행위는 남조선과 해외에서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씨드》배치가 미국의 제국주의의를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본말없는 처사이기때문이다.

《씨드》라는 제양거리를 한사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피폐당국은 온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박근혜당이 강행하고있는 《씨드》배치행위는 남조선과 해외에서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씨드》배치가 미국의 제국주의의를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본말없는 처사이기때문이다.

《씨드》라는 제양거리를 한사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피폐당국은 온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박근혜당이 강행하고있는 《씨드》배치행위는 남조선과 해외에서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씨드》배치가 미국의 제국주의의를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본말없는 처사이기때문이다.

《씨드》라는 제양거리를 한사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피폐당국은 온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박근혜당이 강행하고있는 《씨드》배치행위는 남조선과 해외에서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씨드》배치가 미국의 제국주의의를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본말없는 처사이기때문이다.

《씨드》라는 제양거리를 한사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피폐당국은 온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발하는 박근혜당의 행동을 이자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외세의, 동족대적과 북침전쟁을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친하의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